TRANS-
HUMANITIES

Title : 조르주 바타이유의 '에로티즘'과 소설 『내 어머니』(*Ma mère*) 연구

Author(s) : 차지연 (CHA Jiyeo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4 No. 2 (2011), pp. 201–229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EIH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탈경계 인문학』 제4권 2호
(2011. 6): 201-229

조르주 바타이유의 '에로티즘'과 소설『내 어머니』(*Ma mère*) 연구

차지연

1. 서론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미지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대중들은 언제나 더 큰 자극을 기대한다는 이유를 들며, 매체들은 외설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들을 앞 다투어 생산해 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영화 속의 선혈이 낭자한 살인 장면들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닌 듯 여겨지고, 금기시 되어 왔던 성에 관한 담론들 역시 상당히 개방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문명사회가 억눌러 왔던 에로티즘과 폭력의 해방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질 메이네(Gilles Mayné)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그는 우선 로제 카이유와(Roger Caillois)가『인간과 성』(*L'Homme et le sacré*)에서 주장하는 것[1]과 마찬가지로, 에로티즘과 폭력에 대한 금기의 기원을, 종교가

차지연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www.kci.go.kr

속세의 인간으로 하여금 함부로 '신성'(sacré)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폭력, 즉 "'신성한 영역'에서의 폭력은 오히려 폭력과 에로티즘에 대한 담론이 만연한 현대의 사회에서 더욱 억눌려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그는 오늘날의 에로티즘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행복한 측면을 강조하는 '부드러운' 에로티즘이고, 다른 하나는 "거칠고, 격렬하고, 동물적이지만 코드화되고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포르노그라피에서 나타나는 에로티즘이다(Mayné 2). 현대사회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의 결합을 예찬하며 안정된 노동력의 생산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혐오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변태적 성행위들을 도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도리어 에로티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 이 '신성'과 결부된 에로티즘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에로티즘'과 '폭력'에 천착한 프랑스의 문인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저작들에서 찾아보려 한다. 『눈이야기』(*Histoire de l'oeil*) 등의 외설적인 소설들의 저자로 더욱 잘 알려진 그는, "제 2의 사드"라고 불릴 만큼 자극적인 작품을 쓴 작가로 유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에로티즘 이론을 구축하였고, 또 자신의 문학적 허구 창작물을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가 말하는 에로티즘은 단순히 인간의 성적인 결합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의 역사와 사회 · 경제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틀로 기능한다. 에로티즘을 다루는 바타이유의 글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저작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철학과 문학, 이성과 정념 사이의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1) 카이유와는 신성의 세계와 속의 세계를 분리하고, 신성이 어떻게 속에 의해 '금기'로,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신성의 세계와 속의 세계가 분리되어야 했던 과정을 설명한다(Roger Caillois, 25-26 참조).

www.kci.go.kr

탈경계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성행위를 고찰하되, 에로티즘의 세계와 지적 세계가 동등한 차원에서 만나서 서로 보충하는, 구체적이고도 확고한 총체성의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하며, "에로티즘의 세계와 사유의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킨다"(Bataille, *L'Histoire de l'érotisme* 19)고 선언한다. 사유의 세계가 이성의 세계이자 '안'이라면, 에로티즘의 세계는 정념이 지배하는 욕망의 세계이자 '밖'이다. 안과 밖이 함께 있어야만 우주가 완성되며, 그것이 바타이유가 말하는 총체성이다. '에로티즘'에 대한 '사유'는 바깥에 대한 사유이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바타이유의 철학은 바로 이 '불가능'에 대한 끝없는 탐색에 있다. 에로티즘과 문학은 불가능을 좇음으로써, 총체성을 구현함으로써 노예와도 같은 인간의 조건을 벗어나서 주권적인 인간을 향한 길을 열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을 긍정하는 것"(Bataille, *L'Érotisme* 17)으로 정의되는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은, 삶과 죽음이라는 양립이 불가능한 것의 경계에서 그 경계를 무화시키고, 동시에 '살면서 죽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에로티즘을 전면에 내세워 고찰한 바타이유의 이론적 저작인 『에로티즘』(*L'Érotisme*), 『에로티즘의 역사』(*L'Histoire de l'érotisme*), 『에로스의 눈물』(*Les Larmes d'Eros*)을 독서하며,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본질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성행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에로티즘의 폭력적 양상들이 구현되는 시공간으로 자리하는 문학에 대한 그의 관념을 짚어볼 것이다. 또한 그의 사후에 출간된 소설이자 자전적인 성격을 지닌 『내 어머니』(*Ma mère*)를 분석함으로써,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에 대한 사유들이 그 자신의 문학 창작물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개체들이 서로의 경계를 무화시키고 '소통'하는 강렬한 체험으로서의 글쓰기와 독서, 즉 '문학'과 '에로티즘'이 연결되는 지점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2. 바타이유의 에로티즘과 문학

1) 바타이유에게 있어 에로티즘이란 무엇인가?

(1)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는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나'와 '타자'를 구분하기 시작한다. 바타이유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연속성'(continuité)과 '불연속성'(discontinuité)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에로티즘』의 첫머리에서, 바타이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독하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불연속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 인간은 자신의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끝없이 구분해 낸다는 점에서 죽을 때까지 고립된 존재, 불연속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불연속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러한 고립의 상태가 아닌, '연속성'(continuité)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데, 이 향수는 인간이 동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의, 또는 의식을 가진 주체로 자아를 인식하기 이전에 어머니와 합일되었던 상태로의 회귀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속성은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이상, 다시 말해 불연속적으로 남아 있는 이상, 경험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연속성은 결국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이 버려질 때, 즉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에로티즘을 통해 죽지 않고도 바로 이 연속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의 연속성과 죽음의 매혹이야말로 에로티즘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ataille, *L'Érotisme* 18).

바타이유는 에로티즘에서 절정의 순간을, 죽음을 살면서 맛볼 수 있게 하는 '작은 죽음'(petite mort)이라고 부른다.[2] 이 순간은 자아가 자기와 다른 존재와 성행위를 통해 결합하는 순간, 자아로서의 의식을 벗어내면

www.kci.go.kr

서 타자와 자아를 가르는 개체성의 경계를 없애고,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 자기 자신을 주체로서 인식하고 다른 사물들을 모두 객체로 여겨오던 인간은, 에로티즘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구분 역시 무화시키게 된다. 특히 인간의 주체성과 객체성에 관련한 바타이유의 논의는, 노동을 통해 일궈진 문명사회 속에서 마치 거대한 생산 기계의 부품이나 도구와 같은 위치로 전락해 버린 인간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바타이유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노동에 의해 기획되며, 도구를 사용하던 인간이 그 스스로 도구가 되고 그 스스로 도구와 같은 지위의 객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Bataille, *Théorie de la religion* 306). 객체로서의 사물들은 도구 제작자와 도구의 관계라는 종속적 관계에 놓이게 되며, 노동을 하는 인간 역시 사물로 취급되는 한, '노예와도 같은'(servile), '종속적인'(subordonné) 존재가 되고 만다. 이러한 종속적인 존재에서 벗어난 상태를 그는 '주권성'(souveraineté)이라고 말하는데, 에로티즘이라는 일종의 '체험'(expérience)을 통해 인간은 주권성에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타이유는 『에로티즘의 역사』의 집필 의도에 대해, "이 책은 인간의 행위를 '유용하지 않은 소모' 이외의 다른 목적들에 '종속시키려 하는' 인간들의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L'Histoire de l'érotisme* 10)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에로티즘 행위를 통해 "일차적으로 자신과 다른, 타자로서의 주체로 인식되었던" 객체는 "욕망으로 변하며, 객체와 욕망은 불안을 동반한 전율 속에서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된다. 두 욕망은 존재하되, 서로 섞이고, 혼합된다"(*L'Histoire de l'érotisme* 98). 그런데 이 때의 욕망과 불안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에로티즘이 '작은 죽음'이라

2) 바타이유는 그의 저작 전체에 걸쳐 '작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Les larmes d'Eros* 576, *L'Impossible* 123 참조).

www.kci.go.kr

면, 죽음에 대한 욕망이며,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하는 인간은 내일도 노동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는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기'들을 설정했다. 금기를 '위반'했을 때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규정된 '신성'이며 죽음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기에 대한 위반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역시 에로티즘을 살펴볼 수 있다.

(2) 금기와 위반, 삶과 죽음

에로티즘을 다룬 바타이유의 대표적인 저작인 『에로티즘』은 금기에 대한 위반으로서의 에로티즘을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되어 있다.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은 "에로티즘이 어떻게 죽음이라는 강박과 타협할 수 있는지, 타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러한 타협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규율의 죽음으로써 가능할 것"(Wahl 219)이다. 육체의 죽음이 성행위의 절정에서 맛보게 되는 자아의 상실, 개체로서의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 넘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규율의 죽음은 곧 금기의 위반과 같은 것이다. 바타이유는 에로티즘을 "단순히 낭만주의적인 사랑으로 인한 두 존재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이성의 논리로 구축된 인간 사회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이 연속성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그러한 금기를 넘어서서, 금기 너머의 세계, 즉 연속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신성의 세계로 넘어서는 시도로 설명하고 있다"(Ubilluz 52). 그는 에로티즘이 금기로 규정된 사회에서의 벗어남, 위반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금기를 위반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인간에게 금지된 신의 세계, 신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살면서 체험하는 죽음이라 할 수 있다.

바타이유는 금기의 영역을 크게 죽음에 대한 금기와 생식에 대한 즉성에 대한 금기로 나눈다. 죽음과 관련된 금기로는 살해의 금기와 죽은

www.kci.go.kr

사람을 먹거나 건드리지 않는 태도, 시체를 땅에 묻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성행위와 관련된 금기로는 근친상간의 금기, 월경시의 피에 대한 금기, 벌거벗기에 대한 금기 등이 있을 것이다. 바타이유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폭력'에 대한 저항 방편으로서 금기가 성립되었음을 짚어낸다. "성이나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섭지만 매혹적인 폭력을 마주하기 때문"(*L'Érotisme* 54)인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향한 폭력으로서의 에로티즘,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에로티즘의 문제가 대두된다. 금기가 위반을 전제로 하듯[3], "끊임없는 삶의 윤무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 오직 죽음"이며, 바타이유는 더 나아가 "죽음은 결국 삶의 가장 사치스러운 한 형태"라고까지 말한다(*L'Histoire de l'érotisme* 73).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을 긍정하는" 에로티즘은, 이제 금기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이자,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경계를 지우고 그것들을 하나로 융합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에로티즘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 한들,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작은 죽음'이 아닌 진짜 죽음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바타이유가 '문학'을 통해 스스로 체현하고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가능'에 대한 끝없는 추적이며, 가능한 것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끝없는 체험이고, 이 지점에서 에로티즘과 문학이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4]

---

3) "… l'interdit est là pour être violé"(*L'Érotisme* 66).

4) 바타이유의 글쓰기와 체험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다음 문장을 참고할 수 있다. "The search for an impossible object, which is the essential, leads man beyond accepted limits. This experience of a point of limitation remains inseparable from eroticism and writing"(Marie-Christine Lala 115).

www.kci.go.kr

2) 바타이유에게 에로틱한 문학이란 무엇인가?

바타이유는 "자극적인 에로티즘의 진정한 성격은 '불가능'을 담지한 인물이나 장면을 이용하는 문학으로밖에 드러낼 수 없다"(*L'Histoire de l'érotisme* 151)고 말한다. 문학은 이처럼 진정한 에로티즘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바타이유에게 문학은, 단지 현실 세계에서 이루기 힘든 폭력적 성행위를 묘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님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글을 쓰는 작가에게나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나 문학 작품은 '소통'(communication)을 가능케 한다. 바타이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소통은, 각각의 개인들이 주체와 객체로서의 구분이 없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순간의 체험을 가리키며, 이는 에로티즘에서 이야기하는 연속성의 순간과도 같다. 바타이유는 "그(독자)는 임의의 누군가이며, 나(작가)도 그러하다"[5]고 말하는데, 이는 문학이라는 소통 속에서 작가와 독자 사이에는 더 이상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타이유가 자신의 에로틱한 허구에서 실현시키고자 한 것은 희생제의에서의 참석자와 희생자의 상호적인 상실"(Boldt-Irons 91)이라는 점에서, 문학은 하나의 '희생제의'(sacrifice)라 할 수 있다. 에로티즘과 마찬가지로 금기에 대한 위반의 형태로서 바타이유는 희생제의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제의의 본질은, 희생물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제의의 시간에 불연속적인 개체로서의 희생물이 죽음으로써 연속성을 획득하는 순간, 제의 참석자들 모두가 그 연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에 있음을 강조한다(*L'Érotisme* 27). 문학 작품 속에서는 작가도, 독자도 자기 자신을 잃고 섞여 들어간다. 글을 쓰는 작가도 그 글을 읽는 독자도 모두

5) "Il (lecteur) est quelconque et je (auteur) le suis" (Bataille, *L'Expérience intérieure* 70).

www.kci.go.kr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잊은 채 텍스트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은, 마치 제물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동시에 연속성을 체험하고 있는 제의 참관자, 또는 제의 집행자와 같다. 바타이유는 다음과 같이 문학과 희생제의를 연결시키고 있다.

> 문학은 종교의 놀이를 연장시킬 뿐이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종교의 정통 후예다. 문학은 종교로부터 특히 희생제의를 물려받았다. 상실에 대한 그 열망, 우리 자신을 상실해 버리고 싶어 하는, 죽음에 직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우선 무엇보다도 희생제의에서 달성되는데, 소설 읽기가 가져다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희생제의는 참혹한 방식으로 그려진 하나의 콩트, 소설이다. 희생제의는 소설만큼이나 허구적이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위험하거나 유죄인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재현이며, 하나의 놀이다.
>
> Mais la littérature ne fait que prolonger le jeu des religions, dont elle est l'héritière essentielle. Elle a surtout reçu le sacrifice en héritage : cette aspiration à perdre, à nous perdre et à contempler la mort en face a trouvé tout d'abord dans le rite du sacrifice la satisfaction que lui donne encore la lecture des romans : ce fut en un sens un roman, un conte illustré de manière sanglante. Un sacrifice n'est pas moins fictif qu'un roman : ce n'est pas une mise à mort réellement dangereuse, ou coupable, ce n'est pas un crime, mais sa représentation, c'est un jeu(*L'Histoire de l'érotisme* 91-92).

살면서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제의를 하고 문학을 한다. 바타이유에게 있어 문학의 의의는 거기에 있다. "삶의 가장 사치스러운 형태"로서의 죽음은, 사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체험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www.kci.go.kr

죽음, '작은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죽음의 환희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작은 죽음'이 에로티즘이며 희생제의고, 문학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바타이유가 제시하는 문학과 에로티즘, '죽음을 살기'라는 불가능에 대한 탐색의 여정은 작품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얽혀 있을까? "오직 죽음만이 더러운 타락의 끝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삶들의 총체다"(*Ma mère* 82)라고 말하는 그의 소설 『내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에로티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죽음과 삶이 어떻게 글쓰기와 에로티즘을 통해 엮이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소설 『내 어머니』에 드러난 에로티즘

바타이유의 『내 어머니』는 그가 생전에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텍스트다. 이 책은 작가의 사후에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의 필사본을 정리하고 편집하여 출간한 작품으로, 그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작품이 『마담 에드와르다』(*Madame Edwarda*)의 후속으로 여겨지고 있다. 1966년 판본에 붙어 있는 서문의 역할을 하는 글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본래 바타이유는 『마담 에드와르다』를 포함한 네 개의 텍스트, 즉 『마담 에드와르다』, 『신성한 신』(*Divinus Deus*), 『내 어머니』, 『에로티즘의 역설』(*Paradoxe sur l'Erotisme*)을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연작을 완성시키려는 기획을 품고 있었다(*Ma mère* 5).[6]

주목할 것은, 바타이유의 메모에서 확인되는 바, 이 네 개의 작품의 나열이 바타이유의 필명 중 하나인 '피에르 앙젤리크'(Pierre Angélique)를 일부 변형한 '피에르 앙젤리시'(Pierre Angelici)라는 이름에서 시작하

6) 바타이유의 메모를 옮겨 놓은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Pierre Angelici / Madame Edwarda / I // Divinus Deus / II // Ma Mère / III /// suivi de / Paradoxe sur l'Erotisme / par / Georges Bataille"(*Ma mère* 6)

www.kci.go.kr

고, 작가의 본명인 조르주 바타이유로 끝맺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가 완성한 작품과 미처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 섞여 있는 이 네 개의 텍스트들의 제목들만으로도 우리는, 피에르 앙젤리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네 텍스트를 거치면서 조르주 바타이유라는 이름의 작가 자신, 실제의 인물로 변모해 나가는, 일종의 자전적인 궤적을 발견할 수 있다. 더구나 이 텍스트들 중, 제목에서부터 스스로를 아들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내 어머니』의 작중 화자의 이름은 피에르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소설은 따로 장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피소드들 사이에 들어 있는 제사의 역할을 하는 짧은 글들을 기준으로,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제사에서 바타이유는 "무덤가에서 내가 엿본 시작은 나의 내부에서 죽음도 모욕도 죽일 수 없는 돼지였다"[7]라고 쓰는데, 이 문장은 『마담 에드와르다』 서문에서의 유명한 선언, "신은, 그가 알고 있다면, 그는 돼지일 것이다"[8]라는 선언을 상기시킨다. 돼지의 모습을 한 신, 그것은 아마도 신적인 존재, 주권적 여인으로서 묘사되는 '내 어머니'가 아닐까?

우리의 분석은 그러므로 '천사' 같던 아이 피에르가 타락한 남성, 어쩌면 외설적인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 바타이유 자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내 어머니』라는 완결되지 않은 작품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바타이유의 다른 소설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에도 역시 수동적인 남자 주인공을 유혹하고 그를 타락과 방탕으로 이끌어 들이는, 외설적인 면모 속에서 신성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주권적 여인상[9]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공인 '내 어머니'

---

7) "LE COMMENCEMENT QU'AU BORD DE LA TOMBE J'ENTREVOIS EST LE PORC QU'EN MOI LA MORT NI L'INSULTE NE PEUVENT TUER"(*Ma mère* 9).

8) "Dieu, s'il savait, serait un porc"(Bataille, *Madame Edwarda* 31).

9) 바타이유의 소설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들 중, 대표적으로 『눈 이야기』

www.kci.go.kr

다.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치 통과 의례와도 같은 두 국면의 향연 또는 희생제의를 거친 뒤 어머니의 죽음으로 종결되는 서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작가로 거듭나게 될 주인공의 행보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1) 향연과 희생제의

(1) 향연: 어머니와 레아, 나

다섯 부분으로 나뉜 『내 어머니』의 처음 세 부분은 각각이 비교적 짧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은 직후의 어머니 엘렌(Hélène)과 주인공 화자 피에르(Pierre)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 본격적으로 에로티즘이 묘사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긴 네 번째 부분과 다섯 번째 부분인데, 여기에서 엘렌과 피에르 두 사람만 등장하던 소설에 레아와 앙시, 룰루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차례로 나타난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엘렌과 레아, 피에르가 참여하고 있는 향연이,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앙시와 룰루, 피에르가 벌이는 희생제의와도 같은 변태적 에로티즘이 그려진다. 어머니가 기획한 이 두 사건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타락에 입문하게 되는 두 국면이 된다.

먼저 네 번째 부분은, 아들 피에르를 방탕한 세계로 이끌어 들이겠다고 결심한 엘렌이 자신의 정부인 레아(Réa)를 피에르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레아는 엘렌의 지시에 따라 피에르를 유혹하고, 결국 피에르의 동정을 잃게 하는 여성이다. 도발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인 레아는,

---

의 시몬(Simone), 『C 신부』(*L'Abbé C*)의 에포닌(Éponine), 『하늘의 푸른빛』(*Le Bleu du ciel*)의 디르티(Dirty), 『마담 에드와르다』의 마담 에드와르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의 논평을 참고할 수 있다. "… il est surprenant de constater que l'agression sexuelle contre la femme est presqu'absente de son oeuvre. Par contre, il est fréquent que les femmes prennent l'initiative dans la débauche"(Groot 110).

www.kci.go.kr

그러나 엘렌과 피에르 사이의 근친상간적인 욕망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역할만을 하게 될 뿐이다. 피에르는 레아와 키스하면서도 그녀에게서 "닿을 수 없는 내 어머니에 닿기 위한 우회로만을 본다"(*Ma mère* 67). 이제 엘렌의 정부이자 동시에 피에르의 정부가 된 레아는, 마치 "트리스탄과 이죄가 그들의 사랑에서 비롯된 육욕을 멈추게 하기 위해 둘 사이에 놓았던 칼"(79)처럼, 엘렌과 피에르 사이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정념을 더욱 부채질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두 여인은 피에르를 위해 관능적인 향연을 준비하고, 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고 여기에 빠져들게 된다. 주목할 것은, 이때의 향연을 지배하는 것이 '취기'(ivresse)와 '웃음'(rire)이라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세 사람이 끊임없이 술을 마시고 있음이 반복해서 묘사된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개인들의 의식을 허물어 버리는 취기 덕분에 하나가 된 그들은 카페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로의 몸을 완전히 얽은 채 한 덩어리를 이룬다.

> "술병을 비우자." 어머니가 말했다. "네 잔을 들고 마실 것을 따르렴."
> "손에 잔을 들어야지." 레아가 말했다. "마시자."
> 우리는 계단으로 몸을 던졌다. 나는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 평생 동안.
>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 위에 서로의 몸을 포갰다. 어머니의 팔은 레아의 허리를 감쌌고, 레아는 그녀의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나의 손을 잡고서는, 내 손을 자기 다리의 벗은 부분 중 가장 윗부분에 올려놓았다.
> — Vidons la bouteille, dit ma mère. Prends ton verre et donne à boire.
> — Verres en main, dit Réa, buvons.
> Nous nous jetâmes dans l'escalier. Je décidai de boire et de

www.kci.go.kr

vivre ainsi.

Toute la vie.

Dans le coupé, nous étions les uns sur les autres. Le bras de ma mère autour de la taille de Réa, Réa lui mordillait l'épaule. Réa, qui m'avait pris la main, l'appuyait le plus haut qu'elle pouvait sur la nudité de sa jambe(52).

한편, 네 번째 부분을 여는 제사에 "웃음이 가장 신성한 것이다"[10]라고 쓰여 있음에서 암시 되듯이, 이들이 벌이는 향연을 특징짓는 것은 웃음의 전염이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엘렌과 레아, 피에르가 레아의 사소한 장난 때문에 웃기 시작하여 결국 그 식당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게 되는 장면(54)은, 웃음의 전염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웃음'은 바타이유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는 "우리가 웃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정돈되고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일반적이고 고정적인 질서가 잡혀 있는 세계에서 매우 갑작스럽게, 매우 급작스럽게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전복되고, 그 확신이 기만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세계로 이동함"이며, "웃음으로 닿은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엄격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예기치 못한 것으로 바뀌고, 이 전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요소가 우리에게 마침내 마지막 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11]고 말한다. 세 사람은 술에 취해 벌어지는 향연 속에서, 알 수 없는 것을 향한, 끔찍한 욕망 즉 에로티즘과 죽음에 대한 욕망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웃는 것이며, 이들의 웃음 속에 독자인 우리 역시 섞여 들어감으로써 웃음의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향연은 오래 가지 않아 끝나게 된다. 피에르와 레아의

10) "LE RIRE EST LE PLUS DIVIN"(*Ma mère* 43).

11) Geroges Bataille. "Non-savoir, rire et larmes". *OEuvres Complètes* t.VIII, Paris: Éditions Gallimard, 1976. 216.

www.kci.go.kr

결합을 지켜 본 엘렌은, 아들에 대한 욕망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또 다른 정부인 앙시에게 피에르를 맡기고 레아와 함께 이집트로 떠난다. 피에르를 유혹하지만 '우회로'에 불과했던 레아에 이어 새로운 희생자 앙시와 그녀의 숨겨진 연인인 룰루가 기묘한 분위기의 규방에서 피에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희생제의: 앙시와 룰루, 나

앙시(Hansi) 역시 레아와 마찬가지로 엘렌의 정부이자 피에르의 연인이 되는 여성이다. 장 프랑수아 루에트(Jean-François Louette)는 바타이유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며, 『하늘의 푸른빛』에 등장하는 주권적인 여인으로서의 디르티와 엘렌을 '욕망'의 편에, 제니(Xénie)와 앙시를 '쾌락'의 편에 놓는다(Louette 48). 이처럼 앙시는 스스로 쾌락을 좇는 인물인 동시에 상대로 하여금 들끓는 욕망을 잠재우고 쾌락에 취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그녀의 존재는 금지된 욕망을 불태우고 있는 엘렌과 피에르 모자에게 '평정함'(apaisement)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앙시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 자신이 부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디즘의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앙시는 코드화되고 전형화된 사디스트의 모습으로, "손에 채찍을 들고, 붉은색 머리카락 위에는 윤이 나는 실크 모자를 쓰고, 아마존의 여전사처럼 검은 옷을 입은"(94) 채 피에르의 눈앞에 처음 등장하면서 그를 흥분시킨다. 또한 규방에는 늘 우스꽝스러운 하녀의 옷을 입고 앙시의 시중을 드는 룰루(Loulou)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성이 있다. 룰루는 사실 마조히스트이자 앙시의 숨겨진 연인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된다.

다시 한 번 두 여성과 피에르가 벌이는 향연이 전개된다. 엘렌과 레

www.kci.go.kr

아와의 향연에서 술과 '웃음'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했다면, 앙시와의 향연에서는 술과 '꿈'(rêve)이 지배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피에르와 앙시는 규방 안에서 나가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사랑을 나누다가 룰루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다. 앙시는 룰루에게 거듭 "우리는 꿈을 꿀 것"(100)이라고 말하고, 앞서 레아와 엘렌과의 향연 도중에 "평생 동안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피에르는 이제 "'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12]한다.

숨겨왔던 앙시와 룰루와의 관계가 드러난 뒤, 엘렌과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피에르는, 자기 어머니의 지시대로 룰루와 공모하여, 자기 자신의 변태적 취향을 부인하려 드는 앙시를 사드마조히즘의 연극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후반부에 이르러 규방에 있는 세 사람은 사드마조히즘이 난무하는 "절정의 향연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지만, 작가는 앙시가 채찍을 들고 룰루의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 이외에는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고 있다. 편집자는 이에 대해 바타이유가 "가장 강렬하고 묘사적인 어휘와, 원고의 첫 장들부터 사용해 왔던 완곡한 표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망설인 것으로 보인다"(119)고 논평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에로티즘에서의 황홀경이나 종교적 체험의 절정의 순간은 곧 죽음의 순간과 같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라는 바타이유의 생각이 스스로의 글쓰기에서 암시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룰루가 희생자의 역할을, 앙시가 집행자의 역할을 맡고 피에르가 참관한, 차마 묘사될 수 없었던 희생제의가 끝나자, 여행을 떠났던 레아와 엘렌이 돌아온다. "이 네 여인이 지닌 커다란 즐거움 밖에 남지 않았다"(125)고 말하는 피에르는 마치 메나드들을 거느린 디오니소스의 모습과도 같다. 주지할 것은, 디오니소스의 연극은 에로틱한 동시에 '비극적'

12) "… je me félicitai de vivre ainsi, dans l'atmosphère de «rêve» …"(*Ibid.* 111).

www.kci.go.kr

이라는 것이다. "디오니소스 의식은 착란적일 정도의 무질서 속에서 에로틱하지만, 그것이 에로틱해지면 에로틱해질수록 그것은 비극적이 된다"(*Les Larmes d'Eros* 90). 피에르와 엘렌의 사랑을 동시에 받지만 사실을 희생자에 불과했던 레아에 이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룰루, 그리고 비록 룰루에게 매질을 했지만 피에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향연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앙시, 이 모두가 피에르의 어머니인 엘렌이 꾸며 놓은 사건에 휘말려 들어간 희생자들이다. 엘렌이 열어놓은 방탕함의 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들던 피에르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제의를 참관하는 자로, 제의를 집행하는 자로 변모해 간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한 장본인이자, 제의 집행자의 위치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엘렌 단 한 명만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맞게 됨으로써, 즉 그녀만이 유일하게 직접 연속성을 체험하는 희생자가 됨으로써 소설은 끝맺게 된다.

2) '내 어머니'의 죽음과 침묵

주인공 피에르의 '내 어머니'인 엘렌은 타락을 가능한 한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써 한편으로는 신성한 면모를 띠고, 또 한편으로는 바타이유가 '주권적 인간'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18세기의 작가 사드(Sade)의 모습을 지닌다.[13] 엘렌은 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설사 죽음에 이

13) 바타이유는 여러 작가들 중 특히 사드에 대해 많은 글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중 바타이유의 에로티즘과 관련해서는, 『에로티즘』의 후반부에 실린 두 개의 논문인 「사드의 주권적 인간」(*L'homme souverain de Sade*), 「평범한 인간과 사드」(*Sade et l'homme normal*)를 통해 주권적 인간의 표상으로서 사드를 평가하는 바타이유의 관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논의되는 엘렌의 모습과 연관되는 부분으로서는, 바타이유의 문학 비평집인 『문학과 악』 중 사드에 대해 논평하는 다음의 대목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드는 인간성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킨 자였으며,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칠 때까지 늘어놓는 일, 인간을 파괴하고 그들의 죽음과 고통을 머릿속으로 즐기는 일이었다"고 쓴다(Bataille, *La Littérature et le mal*

www.kci.go.kr

르더라도 자신의 욕망에 몸을 내던지는 것"[14]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레아나 앙시를 비롯한 여성인 연인들을 이용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행에 몰아넣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동정을 표할 줄 모르는 '무심함'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드를 닮았다. 피에르는 이러한 어머니가 추구하는 것을 "육체의 쾌락보다 더 불결하고 더 순결한, 절대로 그 끝이 무뎌질 리 없는 지성의 쾌락"이라고 평한다. 또한 엘렌이 행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잃게 만드는, 모든 한계의 파괴"는 피에르의 눈에 "성당 예배당에서 사제가 하는 설교 강론보다 더 심오하고 성스러워 보인다"(*Ma mère* 108). 따라서 피에르는 "오직 완전한 어둠만이 빛을 닮은" 것처럼 "어머니의 괴물 같은 불경함과 그만큼 혐오스러운 나의 불경함"이 "신을 닮아 있다"(39)고 생각하게 된다. 타락과 방종을 향해, 극단의 악을 향해 '아래'로 질주하는 자신들은 그것이 죽음으로 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불가능한 것을 향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닿을 수 없는 신성함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평범한 어머니들과는 전혀 다른 어머니인 엘렌의 과거는 그녀 자신의 고백을 통해 기술된다. 친척인 뎅제르빌(d'Ingerville)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외설적인 책을 읽고 성에 눈을 뜬 열네 살 소녀였던 엘렌은, 어느 날 자신을 사로잡는 관능을 이기지 못해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숲으로 달려가다가 피에르 아버지의 눈에 띄어 강간을 당했고, 그 날의 정사에서 아들 피에르가 태어나게 되었다. 엘렌에게 이 날의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만큼 강렬한 쾌락을 수반한 '향유'(jouissance)의 체험으로 남게 되고, 이 체험은 계속해서 그녀를 더욱 극단적인 에로티즘을 욕망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그녀는 끊임없이 더욱 변태적인 성행위를 이어 나가고, 자신의 남편을 여기에 가담시켜 타락시킨 뒤, 남편이 죽자

250).

14) "— Ce que je veux? me dit ma mère. C'est, dussé-je en mourir, de céder à tous mes désirs"(Bataille, *Ma mère* 53).

www.kci.go.kr

그 아들을 마찬가지로 타락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엘렌에게 아들 피에르는 자신이 숲 속의 썩은 나뭇잎 속에 파묻혀 향유하던 시간 동안 느꼈던 '불안'(angoisse)의 결실이며, "이 향유에서 태어난"(64) 아이다. 부패되는 생물, 썩은 낙엽 위에서 쾌락과 불안으로 뒤엉킨 향유 속에서 태어난 아이 피에르는 그 존재 자체로 죽음 위에서 잉태된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자기 아들에게 엘렌은 남다른 욕망을 품게 된다. 『내 어머니』의 맨 첫 부분은 피에르가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아들인 피에르는 전형적인 오이디푸스처럼 아버지가 죽은 것은 오히려 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인 엘렌은 미망인의 태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한다. 장례를 치른 뒤 폭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엘렌이 피에르의 방에 들어와서 모자는 매우 에로틱한 포옹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두 남녀를 사로잡았던 근친상간적인 욕망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피에르는 "어머니가 반 벌거벗은 채 내 품으로 몸을 던질 때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오르는, 그리고 나를 절망시키는 내밀한 전복을 느꼈다"(29)고 고백하며, "오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날의 입맞춤만이 나를 전율시킬 수 있으며, 이 입맞춤만이 비극적"(59)이라고 말한다. 엘렌 역시 자신의 아들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녀를 사랑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하며 "그녀 자신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사랑한다"[15]고 덧붙이는데, 여기에서 작품의 결말이 암시된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프랑스 비극의 대표작인 『페드르』(*Phèdre*)를 자연스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앞부분에 묘사되는 모자의 관계는 마치 오이디푸스와 페드르의 만남을 상상해 보는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가? 『내 어머니』에 등장한 엘렌의 모습은, 바타이유가 『에로티즘의 역사』에서 언급한 '페드르 콤플렉스'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15) "… Je voudrais que tu m'aimes jusque dans la mort. De mon côté, je t'aime à l'instant dans la mort"(*Ibid.* 18-19).

www.kci.go.kr

할 수 있다. 피에르와 엘렌이 보여주고 있는 비극은 "성적 욕망을 범죄로 보게 하는, 아주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친상간 금기"를 다루고 있으며, 곧바로 금기를 넘어서지 않고 다른 여인들을 매개로 삼으면서 욕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 불가능한 상태로 지속시키려 했던 엘렌의 시도는 페드르의 비극과 마찬가지로 "견뎌내기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더욱 욕망을 자극하는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하는"(*L'Histoire de l'Érotisme* 84-85)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사드처럼 타락의 끝으로, 페드르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과 정념의 끝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인 엘렌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레아와의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죽음에 가담시킨다. 뎅제르빌의 다락방에서 책을 읽은 뒤 자신을 벌거벗은 채 숲을 달리게 했던 맨 처음의 성적 욕망은 바로 그녀가 가진 것 중 "가장 순결하고 가장 폭력적인 것"이었으며, 그녀는 아들에게 그것을 주고 싶었음을 고백한다. 이제 "아들의 타락이라는 자신의 작품"(*Ma mère* 125)은 완성되었고, 어머니는 아들과 벌거벗고 나란히 누워 정사를 하던 도중 자살을 하고 만다. 그리고 소설은 이 장면을 끝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끝나고 마는데, 여기에서 작가는 삶을 잉태하는 성행위, 에로티즘의 절정이 끝내 죽음과 맞닿아 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어머니는 내 앞에서 셔츠와 바지를 벗었다. 그녀는 벌거벗은 채 누웠다.
>
> 나 역시 벌거벗은 채, 그녀의 곁에 누웠다.
>
>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제 안단다. 네가 내 뒤에 살아남을 거란 걸, 그리고 살아남으면서, 이 추악한 어미를 저버릴/드러낼 거란 걸...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는 네게 자기의 마지막 숨결을 선물하기 위해 너를 기다리던 한 여자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게다.

www.kci.go.kr

아, 이를 꽉 물어라 내 아들아! 너는 네 음경을 닮았구나, 맹렬하게 흘러넘치는 네 음경은 마치 손목을 잡듯 내 욕망을 움켜쥐는구나.

Ma mère retira devant moi sa chemise et son pantalon. Elle se coucha nue.

J'étais nu et, près d'elle, je m'allongeai.

— Je sais maintenant, dit-elle, que tu me survivras et que, me survivant, tu trahiras une mère abomnable… A ce moment je partirai, et jamais tu ne reverras celle qui t'attendit, pour ne te donner que son dernier souffle. Ah, serre les dent, mon fils! tu ressembles à ta pine, à cette pine ruisselante de rage qui crispe mon désir comme un poignet(125).

이는 또한 금기에 대한 최종적인 위반은 결국 죽음으로써 달성될 수밖에 없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위반은, 그것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것은 영원히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불가능'이고, 결국 이 이야기는 침묵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주목할 것은, "너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엘렌의 말이다. 어머니가 궁극의 에로티즘, 죽음으로 외친 욕망이 침묵 속에 묻혔다면, 살아남은 아들의 글쓰기는 그 '침묵'을 '말'하게 될 것이다.

3) '나'의 삶과 글쓰기

『내 어머니』는 결국 '나'와 '어머니'의 이야기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순진무구했던 주인공 화자 피에르가 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변태적 성적 취향을 발견하며 타락에 눈을 뜨게 되는 일종의 성장기이며, 폭력적인 성인식을 그려내고 있다.

우선, 소설이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피에르에게 있어 아버지의 죽음은 사랑하는 여인인 어머니를 자신

www.kci.go.kr

이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에게 삶을 되돌려 주었다"(21)고 믿는데, 여기에서 다시 죽음과 삶이 맞닿아 있음이 확인된다. 디오니소스처럼, 피에르는 소설 속에서 두 번째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피에르의 첫 번째 성인식이 아버지의 유품들이 남아 있는 서재를 정리하던 중에 일어난다는 점 역시, 아버지의 죽음과 아들의 재탄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난장판이 되어 있는 아버지의 서재를 청소하던 피에르는, 아버지가 숨겨 놓았던 외설적인 사진들을 발견하고, 그 사진들 위에서 자위를 한다. 특히 피에르를 흥분시킨 사진은 "남자 아래에 몸을 젖힌 채 누운 한 여인이 고개를 뒤로 하고 눈의 초점이 풀려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의 제목은 바로 "죽음의 아름다움"(30)이었다. 이것 역시 삶 속의 죽음, 죽음 속의 삶을 긍정하는 에로티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가상의 연인들이었을 사진 속 여인들은 아들의 에로티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곧 어머니 역시 아들의 연인이 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고독 속에서 자위를 하고나서 스스로를 자책하던 소년 피에르는, 엘렌이 계획해 놓았던 향연들을 지나, 레아와 앙시와의 관계를 거치면서 타락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어머니와의 '연속성'을 '작은 죽음'뿐 아니라 실제의 죽음으로 체험한 피에르는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의 어지러웠던 성인식을 글쓰기를 통해 다시 체험하고자 한다. 그러나 과거는 이제 극복되었고, "이번에는 내밀함으로 불타오르던 그 기억,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11). 이제야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글을 통해 재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지금은 그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그녀가 남긴 침묵에 대해 쓰고 있음은, 타락의 끝까지 가고자 했던 어머니처럼 끝까지 경계를 밀어붙이고자 하는 아들의, 작가로서의 모습이다. 이제부터 그는

www.kci.go.kr

어머니의 '죽음'을 글로 쓸 것이며, 그 글쓰기는 영원히 반복될 죽음의 체험과 다름없는 것이 된다.

> 나는 내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의 붙잡을 수 없는 이미지, 돌연 신음하게 만드는 그 이미지가 은밀하게 나타나게 하고 싶지도 않다. 그녀는 나의 정신 속에서 언제나 이 책이 흔적을 남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 Je ne désire pas revoir ma mère et pas même en faire apparaître insidieusement l'insaisissable image, celle qui, tout à coup, force au gémissement. Elle a toujours dans mon esprit la place que marque mon livre(81).

불가능을 알면서도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엘렌의 죽음은 피에르의 책을 통해 영원히 하나의 자리를 얻게 된다. 비록 불가능할지언정, 그의 글쓰기는 그녀의 죽음을 재현함으로써 '죽음을 살게' 하는 행위가 된다. 아버지의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난 피에르는 뒤이어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 홀로 살아남았고, 이를 통해 새로이 작가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을 향한 끝없는 한계 체험이자, 글쓰기를 통해 살면서 죽음을 체험하는 에로티즘이다.

4. 결론

"비극, 희극, 에로티즘과 죽음, 웃음과 죽음, 웃음과 에로티즘, 침묵."[16] 바타이유는 자신의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질적인

16) "Tragiques, comique, l'érotisme et la mort sont liés, le rire et la mort, le rire et l'érotisme, le silence"(*Les Larmes d'Eros* 75).

www.kci.go.kr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죽음과 에로티즘은 비극인 동시에 희극이고, 그렇기 때문에 웃음을 향하고 있으며, 이 웃음은 말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과 맞닥뜨리기에 침묵과 맞닿아 있다. 이 침묵을 글로 쓴다는 불가능한 작업이야말로 에로틱한 문학을 생산하는 작가로서의 바타이유가 생각한 문학의 의의일 것이며, 『내 어머니』라는 소설을 비롯한 그의 소설들이 갖게 되는 의미일 것이다.

한편,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에 나타난 모티프들이 바타이유의 다른 소설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내 어머니』의 다섯 번째 부분을 여는 제사에서 작가는 "하늘의 전복적인 폭발은 죽음의 폭발"[17]이라고 쓰는데, 이는 『하늘의 푸른빛』의 주요 테마가 되며, 『내 어머니』의 충격적인 결말 부분은 『하늘의 푸른빛』의 주인공 화자인 트로프만(Troppmann)이 어머니의 시체 앞에서 자위를 한 경험이 있는 시간증 환자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18] 또한 엘렌이 뎅제르빌의 다락방에서 읽었던 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내 어머니』의 후속으로 기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샤를로트 뎅제르빌』(*Charlotte d'Ingerville*)과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열네 살 엘렌이 바로 이 다락방에서 읽었던 에로틱한 책 한 권이 그녀로 하여금 벌거벗은 채 숲으로 달려 나가게 했고, 거기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 숲의 입구에서 어린 소녀의 옷을 벗긴 것은, 뎅제르빌의 다락방에서 소녀가 읽은 것이었단다. 나는 네게 그 다락방의 한 조각을 남겨주겠다. 내 방 화장대 서랍 안에 『닫힌 집, 벌어진 바지』라는 제목의

17) "Cet éclat renversant du ciel est celui de la mort elle-même"(*Ma mère* 74).

18) 루에트 역시, 가족적이고 자서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간증의 모티프가 다른 소설에서, 더 진전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Louette 53 참조).

www.kci.go.kr

책이 한 권 있을 게다. … 나는 너를 내 왕국, 숲의 왕국일 뿐 아니라 다락방의 왕국이기도 한 그 곳에 들어오도록 하고 싶었단다.

Ce qui retirait les vêtement de la petite fille à l'entrée des bois, c'étaient ses lectures du grenier d'Ingerville. Je te laisse un débris de ce grenier. Tu trouveras dans ma chambre dans le tiroir de la coiffeuse un livre intitulé *Maisons closes, pantalons ouverts* … j'ai voulu te faire entrer dans mon royaume qui n'est pas seulement celui des bois mais celui du grenier(*Ma mère* 85-86).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혼자 읽었던 책을 통해서 타락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홀로 마주했던 포르노그라피를 통해서 그 타락의 '왕국'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손에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이, 또는 하나의 포르노그라피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에로틱한 소설이 들려져 있다. 그것이 바로 피에르, 혹은 바타이유가 남겨 준 『내 어머니』의 이야기다.

소설을 이끌어가는 한 명의 주인공이자 작가에게 삶을 불어 넣어주었던 존재인 '내 어머니'는 스스로 집행자이자 희생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강렬한 희생제의로 꾸몄다. 작가는 글쓰기를 통해 죽은 어머니를 작품 속에 되살려내고, 자신을 그 치명적인 기억 속 죽음의 순간으로 다시 내던진다. 이로써 그의 글쓰기는 과거의 재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내적 체험이 된다. 그리고 이제 독자인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며 작가의 체험을 공유하고 있다. 작품 속 '내 어머니'와 '작가', 그리고 '독자'인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희생제의를 치르면서 '연속성'을 '소통'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를 가르던 경계들을 지우고, 죽음을 살도록 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에로티즘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타이유가 말하고

www.kci.go.kr

자 했고 생산하고자 했던 에로틱한 문학인 것이다.

참고문헌

1. 바타이유의 작품

Bataille, Georges. *Ma mère*. Paris: Jean-Jaques Pauvert, 1966.

_____. *L'Érotisme*. *OEuvres Complètes X*. Paris: Éditions Gallimard, 1987.

_____. *L'Histoire de l'érotisme*. *OEuvres Complètes VIII*. Paris: Éditions Gallimard, 1976.

_____. *Les Larmes d'Eros*. *OEuvres Complètes* t.X. Paris: Éditions Gallimard, 1987.

_____. *L'Expérience intérieure*. Paris: Gallimard, 2002.

_____. *L'Impossible*. *OEuvres Complètes* t.III. Paris: Éditions Gallimard, 1971.

_____. *La Littérature et le Mal*. *OEuvres Complètes IX*. Paris: Éditions Gallimard, 1979.

_____. *Le Bleu du ciel*. *OEuvres Complètes III*. Paris: Éditions Gallimard, 1971.

_____. *Madame Edwarda*. *OEuvres complètes* t.III. Paris: Éditions Gallimard, 1971.

_____. *Théorie de la religion*. *OEuvres Complètes* t.VII. Paris: Éditions Gallimard, 1976.

_____. *OEuvres Complètes VIII*. Paris: Éditions Gallimard, 1976.

2. 연구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조한경 옮김. 서울: 민음사, 1998.

_____.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서울: 민음사, 1989.

_____. 『에로스의 눈물』. 유기환 옮김. 서울: 문학과의식, 2002.

Boldt-Irons, Leslie Anne. "Sacrifice and violence in Bataille's erotic fiction." *Bataille, Writing the Sacred*. Ed. par Carolyn Bailey Gill. London:

www.kci.go.kr

Routeledge, 1995.

Caillois, Roger. *L'homme et le sacré.* Paris: Éditions Gallimard, 1950.

Derrida, Jaques. "De l'économie restreinte à l'économie générale."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Paris: Éditions de Seuil, 1967.

Durançon, Jean. *Georges Bataille.* Paris: Éditions Gallimard, 1976.

Groot, Ger. "Le théâtre féminin dans l'oeuvre fictionelle de Bataille." Henk Hillenaar et Jan Versteeg, *Georges Bataille et la fiction.* Amsterdam & Atlanta: Rodopi, 1992.

Guerlac, Suzanne. "Recognition by a Woman! : A Reading of Bataille's *L'Érotisme." On Bataille, Yale French Studies Number 78.* Allan Stoekl *et a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Hillenaar, Henk. "*L'abbé C.* Scénario de l'expérience intérieure." Henk Hillenaar et Jan Versteeg. *Georges Bataille et la fiction.* Amsterdam& Atlanta: Rodopi, 1992.

Hollier, Denis. "Préface," Georges Bataille, *Romans et Récits.* Paris: Éditions Gallimard, 2004.

Lala, Marie-Christine. "The hatred of poetry in Georges Bataille's writing and thought." *On batille*. translated by Peter Collier. London: Routeledge, 1995.

_____. "L'impossible de Georges Bataille : du texte à la formulation du thème." Jan Versteeg *et al.*. *Georges Bataille: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d'Amsterdam*. Amsterdam: Rodopi, 1987.

Louette, Jean-François. "Introduction." Georges Bataille. *Romans et Récits*. Paris: Éditions Gallimard, 2004.

Mayné, Gilles. *Georges Bataille : L'érotisme et l'écriture.* Paris: Decartes & Cie, 2003.

Ubilluz, Juan Carlos. *Eroticism — Geroges Bataille and Pierre Klossowski in the Latin American Erotic Novel.* Cranbury: Associated University Press, 2006.

Wahl, François. "Nu, ou les impasses d'une sortie radicale." Philippe Sollers *et al.*. *Bataille 10/18.* Paris: Union Générale d'Éditions, 1973.

www.kci.go.kr

ABSTRACT

Georges Bataille's "érotisme" in *Ma mère*

Cha, Ji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notion of *érotisme* in Georges Bataille's philosophy and in his novel *Ma mère*. The primary aspect that Bataille's unique concept of *érotisme* shows is the annihilation of limits. All individuals, as purportedly discontinuous beings, experience continuity by losing themselves at the summit of *érotisme*, which leads them to abolish the boundary between themselves and the other. And through erotic acts, those very individuals dissolve themselves and no longer recognize themselves as subjects and their partner an object. In other words, they stop distinguishing one from the other. And by examining the second aspect of *érotisme*, the violation of taboos, we will be able to grasp Bataille's original definition of *érotisme*: the affirmation of life even until the moment of death.

For Bataille, literature is the space where *érotisme* is shown, and an erotic deed in itself, because, similarly to executors and victims of the rite of sacrifice, the writer dissipates himself in his work, while the readers abandon themselves to the lecture.

With this view of *érotisme*, we try to understand the movements of the protagonists in *Ma mère*. Pierre, an innocent boy who is bound to follow the path of debauchery prepared by his mother, Hélène, becomes a man who himself leads a dissolute life. Having

www.kci.go.kr

experienced decadent feasts and erotic rites with his lovers, Réa and Hansi, Pierre finally ends up making love with his own mother and witnessing her suicide. In this story of destruction, we can see how Bataille's autobiographical protagonist grows into a writer, overcoming his mother's fatal love and her death. His writing represents the debauchery and the death that he has experienced.

주제어: 에로티즘(érotisme),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내 어머니』(*Ma Mère*), 에로틱한 문학(erotic fiction), 글쓰기(écriture)

논문제출일: 2011. 04. 12
심사완료일: 2011. 05. 01
게재확정일: 2011. 05. 10

www.kci.go.kr